

보도시점: 2024. 11. 6.(수) 08:30

배포: 2024. 11. 6.(수) 8:30

## “부패없는 세상을 위해”... 대한민국-에티오피아 ‘맞손’

- 한-에티오피아 MOU 체결 이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서 첫 번째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 에티오피아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와의 반부패 협력 회의를 통해 양국의 반부패 분야 교류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지 시각 11월 5일 오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이하 연방윤리위)와 반부패 협력 회의를 가졌다.

\* 연방윤리반부패위원회(FEACC: Federal Ethics and Anti-Corruption Commission) : 에티오피아 반부패 총괄기관(국무총리소속)으로 부패방지 법률, 공직자 재산등록, 부패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

□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와 에티오피아 연방윤리위 간 체결된 반부패 업무 협약 이후 성사된 첫번째 반부패 협력 회의이다.

\* 업무 협약 주요 내용 : ▲ 반부패 정책 공유 ▲ 공무원 대상 연수 제공 ▲ 반부패 기술지원

회의에는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과 연방윤리위 사무엘 우르카토(Samuel Urkato)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국의 부패 척결 경험과 에티오피아 현지의 반부패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한편,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지상군을 파견하였으며, 한국의 對아프리카 최대 개발 협력 대상국이다. 또한, 지리적 이점, 풍부한 천연자원, 60%의 청년 인구 비율 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이러한 글로벌 성공모델에 걸맞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반부패 기술지원을 이행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랜 우방이자 미래 잠재력을 보유한 에티오피아의 도약과 부패 척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 교류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송영희 (044-200-7151)
		담당자	주무관	이가연 (044-200-7157)

